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주소 :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吉淳
編輯人 申吉淳
印刷人 宋永哲



신년사 (新年辭)

“님(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정성은 하늘까지 미치심
이여 그대의 낮은 가셨지만.....”
故 양 주 동 님이 한글로 풀어놓은
도이장가(悼二將歌)의 첫 구절입
니다. 왕건으로 하여금 삼국을 통
일하여 고려를 개국(開國)하도록
절제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주군(主

君)을 대신하여 장렬(壯烈)하게 죽음을 택하신 시조(신승
검)님과 김 락 장군의 충절(忠節)을 기리는 마지막 향가
(鄉歌)입니다.

고려 제16대왕 예종이 왕실과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
는 팔관회에서 강성해가는 금나라를 경계(警戒)하고 백
성(百姓)과 신하(臣下)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하여 읊은
추모의 노래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상례화 유훈으로 팔관회 때마다 짚
으로 만든 인형에 관모와 붉은 관복을 입혀 생전과 똑같
이 반열에 맞게 좌정케 하여, 기쁨을 함께하는 태조의 정
성과 두 장군의 충성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음인지 인형이
일어나 춤을 추며 술잔을 비우고 말을 타는지라 모두들
놀라고 경하하였다 합니다.

이렇듯 고려 오백년은 물론 조선시대에서도 충절의 대
명사로 만인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시조의 기상
과 음덕을 이어받은 명문거족인 우리 평산 신씨는 해가
바뀌어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 안과 밖을 돌아보면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핵개발
을 멈추지 않고 전쟁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 내 나
라 수호(守護)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한 사드를 핑계
로 경제를 비롯하여 각 부문에서 선린우호관계를 헌신적
취급하는 중국, 마치 완장 찬 줄부(拙夫)처럼 미국을 등
에 업고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설치하는 일본을 이웃으
로 두고 있지만 우리는 당차게 선진국 대열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시조님과 같은 불굴(不屈)의 충성심은 어떤 난관도 극
복하여 우리는 전진(前進)을 계속 할 것입니다.

종원 여러분! 매일 매일의 삶이 고난(苦難)과 스트레
스의 연속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세계를 정복하는
쾌감(快感)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애경사에도 그러하지만 가족과 함께 시조 향사
(享祀)나 각종 시제(時祭)참석을 생활화 하시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스스로 복이 깃들 것입니다.

음수사원(飲水思源)의 장(場)인 시조님 탄생과 성장지
인 곡성 용산단과 덕양서원 일원, 장렬한 순절지인 대구
표충사 그리고 한국의 3대 명당으로 꼽히는 춘천 방동리
소양강 변 시조묘전 향사에 의무적으로 참례 하여 주시
고, 충의와 효(孝)문화 뿌리축제인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축제 등을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유년 묵은 때는 깨끗이 지우고 무술년 새해에는 희
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술년 원단

대중중 도유사 신 길 순 올림

2018년 평산신씨 신년 인사회

2018. 1. 4 11:00 세종문화회관 식당가 설가온에
서 대중중 평산신씨 신년 인사회가 개최되었다. 대중중
현수고문, 일순고문, 선철고문을 비롯하여 부도유사,
상임유사 및 대의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중중 문화부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대중중 도유사는 신년사에서 종원들의 건강을 기원하
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고, 우리 종원들이 단
결하여 위로는 선조를 경모하고 종원들과는 우의를 돈독
히 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번영과 양성에 어느해 보다
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현수

고문은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건배 제의도 있었다.

또한 2018년 무술년 희망의 떡 행운의 떡 자르기 행사를 하면서 우리 평산신씨의 단결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모두들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덕담을 서로서로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폐회를 하였다. (문화공파 전침공 종중에서 떡값 20만원 찬조)

전자족보 편집위원회 개최



대종중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운영되는 전자대동보 제작을 위한 전자족보 편집위원회를 지난해 12월 4일과 21일 두차례 종중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2017년 6월19일 204차 상임유사회에서 전자대동보가 후대에 칭송받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편집위원도 현재 8명을 큰 파종중에서 1명씩 추가하여 11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에 따라서, 대종중에서는 수개월 동안 여러 업체와 접촉하는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편집위원회도 파종중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공파에서는 현만, 사간공파는 근택, 제정공파는 현관씨를 추가하여 11명으로 보강하였다. 12월4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전자족보 수단과 등재방법, 수단비의 대가를 정하였지만 경험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전적제출업체의 설명과 시연을 주문하기로 결의되어 12월 21일 제3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1~2차의 회의에서 동안 정해진 수단방법, 수단비, 수단등재 방법, 전담요원 지정 등을 제외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전자족보 시연회와 전자족보 수입금 배분에 대한 의제만 상정하고 3곳의 업체 시연에 들어갔다.

시연은 1시간 간격으로 3군데에서 참여하여 3시간에 걸쳐서 업체의 설명과 시연이 이어졌다.

시연이 끝난 오후3시경에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최종 제작사로 을미대동보를 제작했던 대보사로 선정하여 추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입금 배분에 대한 의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派祖巡廻錄 第19回】

군수공파(郡守公派)



【郡守公派 都有 權彩】

군수공파의 파조(派祖)는 시조(始祖) 장절공(壯節公)의 15세로 휘(諱) 우방(佑邦)이다. 공의 묘소는 실전(失傳)되었고 사적(事蹟)이나 기록이 없어 후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공의 祖 12세 현주(憲周)는 상호군(上護軍) 13세 옥(昱)은 정국공(靖國公) 14세 현(玪)은 군수(郡守)이며 16세 원수(遠壽)는 관찰사(觀察使)를

지냈고 17세 치실(致實)은 은덕부사(隱德不仕) 18세 이충(以忠)은 옥과현감(玉果縣監) 19세 영년(永年)은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역임하시는 등 선조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

파조 우방(佑邦)공은 父 현(玪)과 대대로 군수(郡守)를 역임하면서 당시 군주의 전제통치(專制統治)하에서 백성을 위한 법을 집행하는 직무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백성이 평화롭게 살았다.

근세의 인물과 그 후예들은 우리 평산인(平山人)의 뿌리를 지키고 시조님의 위국충절(爲國忠節)정신을 근본으로 삼아 조상의 음덕(蔭德)을 기리며 세상의 일에 밝은 지혜(智慧)를 가지고 각계(各界)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중요 직에서 활동 중이다.

종중 도유사 34세 권채(權彩)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중이고 대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종중 휘장 최우수 도안자이기도 하며, 감사유사를 계속 중임하고 있다.

2018년도 대종중 표창대상자 및 장학생 선발 계획

2017년 한 해 동안 종중과 화수회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원을 발굴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또 종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재육성에도 기여 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여 표창자와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대상자 선발 세부 계획

가. 자격

- 1) 을미대동보에 등재(수단)된 상계가 분명한 자
- 2) 효자(평신신씨 종원), 효부(평산신씨 종원의 배우자)
- 3) 종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종원(6년이상 종중 직무를 수행하거나 종중을 위한 헌성 또는 봉사로 종중 발전에 공헌한 종원)
- 4) 평산신씨 명예를 드높인 종원(국가사회를 위한 공로 및 명성으로 평산신씨 명예를 빛낸자)

5) 파종중 및 화수회당 1명 이내

나. 구비서류

- 1) 표창대상자 추천서(공적내용) 1매
파종중도유사 또는 거주지 시도화수회장의 확인
날인
- 2) 을미 대동보 사본 1매
- 3) 주민등록 등본 1매 (최근 3개월 이내)
- 4) 사진 : 반명함판 2매

다. 접수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월 31일(기일엄수)

라. 접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마. 표창자 발표

장학·상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 결정 후 개별통
지하며 시상식은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시 수여
바. 5년 이내에 수상한 종원은 배제함.

▶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

1. 장학금 지급 대상 :

4년제 정규대학교 대학생 중 2.3.4학년

2. 장학금 지급 인원 : 10명

3. 장학금 지급 금액 : 매학기1인당 100만원

4. 신청 자격 및 성적기준

가) 평산신씨로서 최근발간한

을미대동보(2015년발간)에 등재된 종원.

나) 신청時 前학년 성적 기준(4.5기준)

I 그룹 : 서울대. 포항공대. 연대(서울).

고대(서울). 각 대학 의과대(치대, 한의대
포함, 간호학과제외) : 평점 3.2이상

II 그룹 : 서강대(서울). 성균관대. 한양대(서울),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서울), 이화
여대(서울), 부산대(부산), 경희대(서울),
중앙대(서울), 경북대, 건국대(서울),
인하대(인천), 서울과학기술대(서울),
홍익대(서울), 동국대(서울) : 평점 3.4이상

III 그룹 : 기타대학(외국 대학교 제외) : 평점 3.6이상

5. 장학금 지급기간 :

선정된 당해 연도1.2학기에 한함.

6. 장학금 신청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7. 지급 대상자 선정 인원 및 방법

- 일반평가선발 : 5명

- 그룹별 성적순으로 평가 : 위 4항 나)항에 의함
- 동점시 대종중, 파종중, 화수회 임원의 자녀를 우선

- 특별추천선발 : 5명

-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
- 50%는 성적 + 50%는 각 파종중도유사 및

화수회장 추천(1명) 평가점수를 합산

· 동점시 대종중, 파종중, 화수회 임원의 자녀를 우선

8. 구비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통

나) 前학년도 성적증명서 및 재학 증명서 각 1통

다) 가족관계증명원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통(최근 3개월 이내)

라) 을미 대동세보의 본인 등재 사본 1통

마) 본인 은행통장 사본 1통

바) 반명함판 사진 2매

마) 생활보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9. 장학금 지급일 : 1학기 : 2월말 이내

2학기 : 8월말 이내

10. 확인 절차 :

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금 영수증
사본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 1학기는 3월 15일까지,

◎ 2학기는 9월 15일까지 필히 대종중에 제출하여야함.

나) 군 입대, 휴학, 성적미달자(2학기 지급시에는 성적을
확인하여 前학년 학점 대비 10%이하 저조시)와 장학금
을 지급 받고 미등록 시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회수)되
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 위 4번 나)항의 그룹별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자
는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장학생으로 선발
에서 탈락되어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2.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춘천 장절공 향사(음력 3월
3일, 9월9일) 때에는 참석하여야하며 봉사활동에도 적
극 참여하여야 한다.(별도 통보함)

▶ 표창추천서, 장학금신청서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에서 다운받기,

E-mail pyongsan777.naver.com 으로 요청하기

파종중 · 화수회 소식

밀직공파 종중 정기총회 개최



2017년 11월 18일(음 10월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1에 있는 대가(大家)에서 85여명의 밀직공파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섭(永燮) 감사유사의 사회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음력 10월 1일은 파조(派祖)이신 휘(諱) 아(雅)님의 시향일(時享日)이다. 그러나 묘소(墓所)가 북한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연봉에 모셔져 있으므로 직접(直接) 시향제(時享祭)를 봉행(奉行)하지 못하고, 대신 이 날을 정기총회일로 정한 후 매년 서울, 청주, 전남, 전북을 차례로 순방(巡訪)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파조(派祖)님을 추모하고 있다.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밀직공파 파조이신 평산신씨 15세 휘(諱) 아(雅)님에 대해 엄숙하게 묵념을 올린 다음, 언식도유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의껏 축의금을 출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작년 정기총회 때 저의 후임 도유사 선출을 1년 연기했었는데 금년에는 잠시 후 구성할 전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선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중중에서는 전자대동보 즉 전자족보 편집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11월말에 을미대동세보에 대한 오류사항 정정신청을 마감하니 우리 종중에 서도 마감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족보에 대한 수단업무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달하였다.

또 매년 시조 장절공 춘천 묘소에서 봉행하는 음력 3월 3일 춘향제(春享祭)와 음력 9월 9일 추향제(秋享祭)에 보다 많은 종원들이 참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에도 많이 참가해 달라고 당부하고, 금년에 개최한 제9회 축제에서는 우리 평산신씨가 자랑스러운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의 깃발'을 음력 9월 9일 봉행한 시조님 추향사 때 뿌리축제를 주관한 대전·충남화수회장이 펼쳐 보였다고 했다.

다음 언욱(彦旭)고문은 격려사에서 파조 밀직공(密直公)의 자(字)는 담수(淡叟)요, 호는 한천자(漢川子)로 공민왕조(恭愍王朝)임진년에 진사(進士) 급제를 시작으로 지금으로부터 660년 전 정유년(1357년)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한림관봉익대부동지밀직사사(翰林官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벼슬에 오르셨다. 공양왕(恭讓王) 원년에 지금의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한천으로 귀의(歸依)하여 여생을 마감하셨는데 아직도 파조님의 생졸(生卒) 기록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경희 대부, 언식도유사님, 장순상임유사도 월남한 실향민으로 감회가 새로운 정유년을 보내면서 선조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회고(回顧)하였다. 이어서 영섭(永燮) 감사유사가 감사보고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고했으며,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관한 안전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2018년도 정기총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했다.

한편 도유사등 임원 선출에 관한 전형위원회가 별도

장소로 옮겨 토의한 결과 현도유사가 1년 유임하기로 하고 부도유사 및 상임유사 선출은 각 문중별로 위임하기로 했음을 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를 폐회했다.

문화공파 종중 향사 및 정기총회



2017년 11월 18일(토, 음력 10월1일)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 있는 파조 문화공 휘(諱) 개(槩)의 단(壇)에서 전국 경향 각지 10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향사를 봉행하였다.

공의 묘소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창평리 유좌에 모셔져있다. 1945년 남북의 분단으로 후손들이 선영(先塋)을 등지고 월남하여 제향봉상(祭享奉上)여부를 알지 못한지 40여년 후인 1986년 6월 지금의 장소에 많은 후손들의 참여하에 단을 조성하고 조경사업 및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이곳은 공의 초배(初配)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평강채씨(平康蔡氏)의 묘소로서 공께서 20대에 외직에 나갔다가 상배(喪配)를 당하니 친히 택정(擇定)한 곳이다. 좌측에 공의 단(壇)을 모시고 우측에는 후배(後配)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선산김씨(善山金氏)의 단(壇)도 같이 만들어 매년 음력 10월 1일에 향사를 봉행하여 왔다.

공은 타고난 천성이 단정하고 엄숙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근면하고 근신하였다. 고려조에 태어나서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고, 조선조 태조를 비롯하여 세종 등 네명의 임금을 섬겼으며 항상 신임을 받아서 두루두루 많은 벼슬을 하고 1445년 좌의정에 승진하였지만 그 이듬해인 1446년 1월에 와병(臥病)으로 졸(卒)하니 73세였다. 당시 세종대왕이 매우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조문(弔問)과 부의(賻儀)를 의식대로 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치렀다. 임금은 공에게 문희(文僖)의 시호(諡號)를 내리니 학문에 부지런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조심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희(僖)라고 하였다. 그 후 1451년(문종1년) 세종대왕에게 보정(輔政)한 공헌(貢獻)이 지대(至大)하여 세종묘정(世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이 날 향사에는 초헌관으로 해남에서 온 정현(鼎鉉), 아

현관에는 진주 행균(幸均), 종헌관에는 서울 구영(球泳), 집례에는 음성 동원(東元), 대축에는 광주 우현(佑鉉)이 분임되어 예를 다하여 봉행하였다.

이어서 파종중 재실인 양줄재로 자리를 옮겨서 현만 총무의 사회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시조 장절공과 파조 문희공 등 조상의 예를 시작으로 2017년도 감사보고를 하고 결산과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의제인 문희공 국가표준영정 영정각 건립 헌성금 모금에 대하여 종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헌성금 모금에 모든 문희공파 종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로 결의 하였다. 그리고 영정각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 양줄재 내에 영정을 모시는 단을 제작하기로 가결하고 폐회하였다.

▶ 문희공 국가표준영정 영정각 건립 후원금

- 후원금 목표 : 이억 일천 삼백만원(₩213,000,000)
- 후원금 기준 : 1) 문희공 후손 : 1인당 2만원,
2) 종중임원 : 1인당 30만원이상
3) 지파종중 : 100만원 이상
- 모금계좌번호 : 농협 351-0264-4886-73
신현만 (문희공파종중)

정언공 종중 향사 봉행



정언공파 종중(正言公派 宗中 都有司 申澈秀)은 지난 11월 18일(토)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소재 정언공(正言公) 묘소에서 향사(享祀)를 봉행(奉行)하였다.

초헌관(初獻官)에는 철수(澈秀) 도유사(都有司), 아헌관(亞獻官)에는 수균(壽均), 종헌관(終獻官)에는 장균(莊均), 집례(執禮)에는 흥균(興均), 대축(大祝)에는 상철(相澈)유사(有司)등 제관(祭官)과 100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면서 파조(派祖)의 높은 뜻을 기렸다.

아울러 16세 전직공(殿直公), 주부공(主簿公)과 17세 사직서령공(社稷誓令公)을 차례로 봉행 후 음복(飮福)을 하였다.

온수감공파 종중 정기총회

2017년도 12월 22일 11시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

는 서천군 문예의 전당 강당에서 종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수감공파 종중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종중 도유사의 축하 화환을 비롯하여 많은 종원들이 축하 화환과 축의금을 보내 주었다.

이 날 식전행사에서는 연예인을 초청하여 가수들의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한섭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신씨문중 며느리 이영희씨에게 효부표창과 부상, 꽃다발을 수여하고 많은 박수로 칭송을 하였다. 이어서 상운 감사의 감사보고 문섭 재무의 회계보고 등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승용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평산신씨의 위상을 계속이어 갈 수 있도록 종사(宗事)에 종원을 비롯한 후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고, 종원들은 힘찬 박수로 응답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동원 종이 기증한 기념품 전달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폐회를 하고, 인근 늘봄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화기에애한 가운데 중식을 하면서 정담을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였다.



이상공파 종중

이상사(貳相祠) 준공식과 향사 봉행



꽃봉오리처럼 아름답게 조각된 명당 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등백산 자락 절골에 품위 있게 자리 잡은 이상사의 준공식이 2017년 11월 27일(음력10월 10일) 오전 9시 관내 기관장과 종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선군 이상공파 도유사는 3년 전 무주공산 같은 종중 살림을 이어받아 일부 자

투리 종토(宗土)를 정리하는 등 기금 조성과 훌륭하신 선조를 편안히 모시기 위한 재실 이상사의 오늘 역사적인 준공식까지의 역정이 정말 꿈만 같다고 감회를 피력한 후 그동안 성심을 다해 수고해 준 순철 총무와 운영위원 그리고 많은 종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약 5억 원의 종재가 투입된 이상사는 전통양식에 고증된 단청으로 치장되어 재실로서 그 품격을 갖추었다. 아울러 관리사와 종답(宗畓)도 마련되었고 병진보에 등재된 이상공파 종원의 영원한 안식처도 재실 뒤에 준비되었으며, 향후 납골당도 안치할 예정이다. 준공식에 이어 시조 영정을 비롯하여 파조부터 32세까지 위패가 안치된 재실에서 제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 대구, 충청 일원에서 파종중 도유사와, 화수 회장, 대중중 총무부장 이하 많은 종원 여러분이 자리를 빛내 주었고, 길순 대중중 도유사를 비롯한 약 60여개의 축하 화환이 준공식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판사공파 종중 정기총회 개최



2017년 11월 20일(음력 10월 3일) 월요일 11:00 제 71차 판사공파 정기총회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임경대 2층 회의실에서 판사공파 종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 장절공과 선조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식순에 따라 질서 정연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신현구 도유사님의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고 신임 신세원 도유사의 인사말에서, 전임자들이 이룩하여 놓은 중중사를 계승하여 위대하신 선조님을 추앙하고 종원간 화합 단결을 통해 판사공파 종중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어서 전 도유사님의 축사로 “그동안 존경하는 종원들의 덕분으로 2번의 임기 6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사양서원 묘우 개축을 새롭게 단장하게 되어 종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어서 신상경 감사님의 감사보고와 신길현 사무국장의 경과 및 재무보고가 있었고 다음으로 도유사의 2017년 사업보고 및 2018년 사업계획, 토의사항을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시조 장절공 탄생성장지 용산단(龍山壇) 숭모향사(崇慕享祀) 봉헌(奉獻)



평산신씨 시조이신 고려개국원훈 장절공 신승겸장군을 숭모하는 2017년 향사(享祀)가 풍성한 가을 향기 속에 11월 6일(음력 9월 중정일) 시조님의 탄생 성장지인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용산단에서 봉행(奉行)되었다. 전국의 종원과 곡성유림대표, 기관사회단체장, 언론인 등 200여명이 오전 11시에 초헌관 신락균(申樂均, 전 문화관광부장관), 아헌관 신동하(申東夏, 대구·경북화수회장), 종헌관 신문식(申文湜, 전북화수회장, 군산합동법률대표변호사) 등 3헌관과 참제자들이 신현덕(申鉉德) 대중중 부도유사의 집례로 정중하게 봉헌(奉獻)하고, 향사 후 헌제관(獻祭官)과 참제자들은 장절공 동상을 참배하였다. 이어서 개최한 용산단 총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재직중 용산단 성역화에 기여한 신낙균(申樂均) 전 장관에게 송공패(頌功牌)를 증정하고, 신명식(申明湜) 용산단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시조님 입근(立謹) 1090년 숭모향사(崇慕享祀)에 숭조애중(崇祖愛宗)의 마음으로 전국에서 참제하신 종원들과 곡성유림대표, 곡성군기관사회단체장, 언론인들께 감사하다”는 요지로 말하고 신길순(申吉淳) 대중중도유사는 “우리 시조님 탄생 성장지 용산단은 충절(忠節)의 성지(聖地)로서 참제하신 여러 분들과 70만 종원들에게 시조(始祖)님의 음덕(蔭德)이 충만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한 다음 초헌관으로 참제한 신락균(申樂均) 전 장관은 “우리 시조님 탄생 성장지 용산단이 이렇게 잘 꾸며진데 대하여 자긍심을 갖는다”는 요지로 인사하였다.

총회에 어어 오찬으로 정담을 나누며 향사를 종료하였다 (곡성일보와 谷城新聞에 보도됨)

後 孫 獻 誠 者(후손헌성자)

(단위:만원)

1) 개인(개나돈)

경엽 5 (전북 정읍화수회)
광철 10 (대전 서구)
근택 10 (사간공파 도유사)
금순 10 (곡성문화해설사)
기안 5 (광주 광산화수회총무)
낙균 30 (초헌관전문화관광부장관)

경현 5 (광주시 북구)
규담 5 (전남 영광화수회장)
근택 10 (경기 가평판원사종중)
금철 5 (대구 동구)
길순 10 (대중중 도유사)
동곤 5 (전북 고창군)

동수 10 (한성윤공파 선원공종회장)
 동열 5 (전북 익산시)
 동학 10 (곡성 원달)
 명식 100 (용산단 도유사)
 문식 10 (전북화수회장)
 민철 10 (대전충남화수회장)
 봉철 10 (미국거주)
 성삼 10 (광주 광산화수회장)
 승철 5 (대구 북구)
 영철 5 (전북 정읍시)
 우현 10 (경기 이천시)
 유식 5 (전북 익산시)
 인현 10 (덕양서원 도유사)
 정섭 5 (전남 목포시)
 정철 5 (전북 고창군)
 중철 5 (전남 곡성군)
 지영 5 (대전 문화공)
 창문 5 (전남 목포시)
 창혁 10 (광주시 광산구)
 춘대 5 (경북 영양군화수회)
 태승 10 (경북 봉화진사공파)
 해식 5 (전남 곡성군)
 현대 5 (광주시 남구)
 현동 5 (전남 담양군)
 현문 20 (표충재 도유사)
 현실 5 (전남 순천시)
 현전 5 (전북 정읍시)
 현진 10 (대중종 총무부장)
 형철 5 (전북 정읍화수회)
 희철 5 (전북 정읍시)
 평산신씨 대중종 30
 전남여수화수회 10
 전남영광화수회 10
 전남목포화수회 10
 전남담양화수회 10
 한성윤공파 선원공종회 10
 전북남원화수회 10
 사간공파평택구룡종중 20
 충북음성소이면화수회 10

2) 他姓 肅誠者(타성 현성자)

· 성숙자 2 (전남곡성 도립사) · 곡성군수
 · 辛相善 10 (농협 곡성군지부장) · 정춘호 10 (곡성군 목사동면장)

3) 花環(화환) : 평산신씨 대중종, 표충재, 대구경북화수회, 사간공파중중 사간공파대구매곡종중, 사간공파부정공종중,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충경공파 시정공종중 향사봉행



지난 2017년 11월 18일(음력 10월 5일 토요일) 11:00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산 10-2번지 시정공 묘전에서 향사가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시정공(寺正公) 휘(諱) 수일(粹一)은 1565년(명종 20년)에 나서, 1601년(선조34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관(官)은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종손 집(鑣)이 귀히되어, 조부(祖父)는 사복시정공(司僕寺正公)으로, 부(父) 휘(諱) 절(節)은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추증되었다.

이날 초겨울이라 조금 차지만 청명한 날씨인데도 전국 경향각지에서 오신 후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초헌관으로는 현기(鉉奇), 아현관에는 현수(鉉洙), 종헌관에는 현규(鉉奎), 대축에는 은식(殷湜), 집례에는 현택(鉉澤)도유사가 분정되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먼저 도유사의 인사에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내년에도 종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는 인사가 있었고 다음으로 전년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결산안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 참석자 모두가 오찬을 같이 하면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내년을 기약하였다.

서울시 화수회 송년회 개최



서울시 화수회에서는 2017년 12월 18일 12시 광진구 스타시티 “무스쿠스”에서 문웅 명예도유사와 금현, 평균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유년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현덕 회장은 송년사에서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많은 종원이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깝다”고 말하고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았고 우리 화수회에서 회장과 일부 임원 개선이 있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시조 유적지인 충남 서천 울리사 참배와 효 문화의 전당인 대전 뿌리공원 탐방에도 많은 종원이 참석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간 전임 회장님들이 이루어 놓은 고귀한 업적을 면면히 이어

가면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조선(祖先)을 경모하고 회원 간 단합과 친의를 돈독히 하여 평산신씨로서 제일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하고 저물어가는 정유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종원들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기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 서로의 덕담이 오고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폐회하였다.

충주시화수회 산하 신우회 표충재 참배



충주시 화수회 산하 단체인 신우회(회장 광희 31세)에서는 지난 11월 26일 대구 지묘동의 표충재를 참배하고 이곳에서 장렬히 순절하신 시조 장절공 할아버지의 넋을 기렸다. 참석한 회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슴깊이 새기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였다.

영양군 화수회

- 시조 탄생지 “곡성 용산단”을
다녀와서 -



평산 신씨 경북 영양군 화수회(회장:성도 재정공34세)는 지난 11월 6일 종원 및 가족 40명이 시조 장절공

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곡성 용산단 대축제에 참배하였다.

10:30 목적지인 곡성 용산단에 도착하니 궁중음악이 은은하게 울리는 차분한 가운데 행사 준비에 분주하였다. 화수회원들은 경내를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시조님 동상에 참배하였다.

11:00 집례의 우렁찬 창홀에 따라 봉행이 시작되었다. 초헌관에는 낙균 전 국회의원, 아헌관은 동하 대구·경북화수회장, 종헌관은 문식 전북화수회장이 분정되어, 대중중 길순 도유사를 비롯하여 곡성유림대표, 기관사회단체장, 우리화수회 성도회장을 비롯하여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례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어진 용산단 정기총회에서 용산단 도유사(명식)는 문화관광부장관 재직중 용산단 성역화에 많은 기여를 한 신낙균 전 장관에게 송공패(頌功牌)를 증정하였다. 초헌관으로 참례한 신 전 장관은 인사에서 “우리 시조님 탄생 성장지 용산단이 이렇게 잘 꾸려진데 대하여 자긍심을 갖는다”고 하였고 길순 대중중도유사는 “참례하신 여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시조님의 음덕이 충만하시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용산단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였다. 차례를 기다린 만큼 점심식사도 만족하였다. 특히 외지에서 온 손님들 지방분들이 양보하는 작은 배려에 종원 모두가 고맙게 생각했다. 영양군화수회는 매년 5-6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격년제로 시조님의 유적지 3곳을 차례로 참배하여 위왕대사하신 장군님의 우국충정을 기리며 종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모애친의 정신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덕균 총무는 거금을 지원해주신 성도회장과 참여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다고 하면서 많은 종원들이 가족들과 같이 시조님을 참배하고 사적지를 더듬어 보는 의미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종원동정

신재현 (38세, 문희공파)
기계공학박사 학위 취득



경기도 오산시가 고향인 재현은 신기봉(37세, 문희공파)의 1남2녀 중 막내로 수원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메카트로닉스 학사 과정과 동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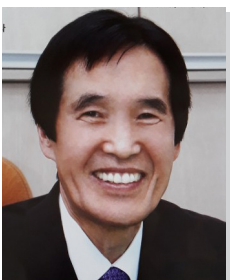
한 수재로서 지난 8월1일 호주 멜버른 소재 RMIT UNIVERSITY에서 총장 Dr. Ziggy Switkowski로부터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은 “로봇 보조 인공호흡 수술을 위한 온라인 모델 추정 및 햅틱 특성분석(Online model estimation and haptic characterization for robotic-assisted minimally invasive surgery) 연구”로 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RMIT UNIVERSITY에서 정부과제인 농촌에서 농작물 재배 과정중 잡초만 제거하는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에서 평산 신씨 가문을 더욱 빛내고 나아가 글로벌(Global) 시대의 인재가 되기를 기대 한다.

신 우 용(36세, 운수감공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1급) 승진



충남 서천군 비인면 울리가 고향인 우용宗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연대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법학석사로서 1994년부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법제과장·국장 등 여러 직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2018년 1월 1일자로 관리관(1급)으로 승진하고 선거정책실장으로 보임을 받았다. 우용宗의 승진은 우리 평산신씨가문의 자람이며 영광이다. 나라를 위해 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정순 법무사 (34세, 제정공파) - 아시아뉴스통신 2017. 12월호 보도 -



신정순 법무사는 4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풍성한 경력으로, 의뢰인의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은 물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자문을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21년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25일 제 53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뉴스통신 2017. 12월호에서는 신법무사가 순수한 봉사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주고, 기부와 재능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사회 활동은 우리 평산신씨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사색(思索)의 편린(片鱗)



낙엽이 스승이다.

신가군(32세, 정언공파)

산나물도 뜯고 뿔바람도 쐬 겸 소풍 길에 나섰 다. 썰레꽃 머리라 날씨는 화창하다. 우리는 넓고 곧은 터널을 피해 꾸불꾸불한 고개를 넘어 산동네로 들어설 때였다. 운전하는 젊은 친구가 저리로 발갈이 하는 걸 보고 “어어! - 소 두 마리가 발을 가네!” 하고는, 잠깐 땀을 드리고는 “저거! 옛날 화가 김홍도의 -논갈이- 그림과 같네.” 젊은이가 툭 던진 말이다.

언뜻 보아 손바닥만 한 텃밭을 가는 저릿소 보 잡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저리질이 반가워 사진을 찍으며 ‘경운기로 갈면 쉬울 텐데!’ 생각을 하다가 ‘아뿔싸!’ 아니지. 평생을 땅만 판 저 노인은 농사 일을 처음 배울 때부터 쟁기질이 몸에 배어 저러지 싶다. 노인의 “이라! 워워! ...!” 하는 보 잡이 소리와 함께 예전의 농사일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요즘과 달리 비싼 화학비료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집이 많았다. 사정이 그리하여 사람이나 짐승의 오줌 : 똥이 섞인 퇴비를 거름으로 썼다.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때 우리 아버님도 초봄이면 뒗간 거름과 쇠두엄을 소바리 옹구에 담아 밭에 내던 모습도 어렵잖았다. 거름을 내고 언 땅이 풀릴 때면 저릿소를 모는 보잡이의 “이라! 어더 더~” 하는 소리가 들판 곳곳으로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뵈는 게 저릿소 쟁기질이니 구경거리도 이야깃거리도 아니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무명웃에 짚신을 신고 자란 내가 어느덧 칠십 늙마로 ‘넓은 바다는, 동태 : 고등어 : 바지락, ..., 이 무진장 쌓여 있는 저장고였다. 모내기 한 논배미는 쌀 곳간이고 보리쌀 창고는 보리밭일터라. 감자창고는 감자밭일 게고 감자 캐낸 뒗그루로 매밀 씨를 뿌리면 매밀 광일 것이다.’ 곳간이고 창고 격인 밭이나 산비탈 다랑논에 심겨 있는 곡식 줄기와 잎들이 낱알 여물리는데 소매를 걷어붙였다. ‘갈바람에 곡식들이 허 빼물고 자란다.’ 는 말처럼 울창하게 벼를 여물린 짚대들은 생기가 켜졌다. 제 할 일을 다하고 고스러지는 짚대들도 울창 벼알이 대견

하고 뿌듯한지 선들바람에 “흔드렁 ~ 흔드렁 ~” 춤은 춘다. 그에 질세라 과실나무들은 가지가 휘다 못해 찢어지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대주는 온갖 식물들의 삶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갓 돋은 새순이 꽃샘추위에 얼기도 하고 삼복 무더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차게 퍼붓는 태풍 장맛비를 꺾꺾이 버텼다. 그리고 보니 고험(苦海)라는 옛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두고 한 말이지 싶다.

풍상고초(風霜苦楚), 애써 여물인 제 씨 대부분을 딴 생명을 먹여 살리는 수플들의 마음씨가 가혹하다. 그러나 곡식 대나 잎들이 다른 생명들에게 양식 대줄 책임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건 아닐 것이다. 제가 우선 살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고, 제 조상들이 한 것처럼 낱알 농사를 짓지 싶다.

이 햇빛 찬란한 세상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겪어 본다는 건 더없는 영광이다. 산다는 것, 사는 방법들이 참 기기묘묘하다. 사돈의 팔촌뻘도 아닌 먼먼 남남으로, 수플은 식물이고 벌 : 나비는 곤충이다. 그런 사이가 참 오묘하다. 수플들은 꽃 속에 꿀과 화분(花粉)을 담아 놓고 벌 : 나비를 꼬드쳐 증신아비로 쓰는 수법이 놀랍다. 벌과 나비는 꿀 먹어 좋고, 꽃들은 시집 장가가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닌가, 그런 이치로 보면 온갖 생명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갚으며 산다.

여름에 나뭇가지와 이파리는 떨어야 썬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러나 언제는 헤어져야 한다. ‘매미는 내년이 없다.’는 숙담처럼 어느 목숨도 불사영생(不死永生)은 없다. 입추(立秋)가 지나고 처서(處暑) 녘. 아침저녁으로 갈바람이 선들거리면 청청하던 잎들이 불그름해진다. 이럴 듯 산과 들판의 나뭇잎들이 자색 : 연분홍 ..., 단풍 물이 들면 말 그대로 만산홍엽(滿山紅葉)이다. 그런 단풍철에 하늘에 두둥실 떠가던 하얀 구름도 모양을 한 번 내 보고 싶어 단풍 꼬까를 빌려 입고 저수지에 누워 유유히 흘러간다.

바로 그때였다. 짓궂은 돌개바람이 불난 데 키질하듯 “휘-익-” 불어제치면 홍 : 황색 이파리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일러 추풍낙엽이다. 염천 땡땡과 태풍에 끄떡 않던 잎사귀들이 힘없이 떨어진다. 명(命)대로 살만큼 산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삶과 죽음. 순리대로 돌아나 순리를 따르는 수플과 낙엽은 만물(萬物)의 본보기요 스승이지 싶다. 낙엽이 바람에 속절없이 불려가는 거 애잔한 것 아니다. 억겁부터 굴러 굴러가 퇴비 : 종자 : ..., 배설물로 윤회하며 이 세상의 온갖 생명들의 먹거리를 대주는 수플들이 그지없이 고맙다.

“어 휴~!” 산나물 뜯느라 땀캐나 흘리며 산바람 잘 쐬었다. 까투리가 놀라 “푸드덕~” 도망간 등지 속에 수북이 쌓인 썩알을 보고, 빈손으로 오는 내 마음과 발걸음이 가련하다.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무소유의 삶과 침묵중에서 -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 때이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감내하겠는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한때이다.
좋은 일도 그렇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 갖지 않던 인간 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한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참 어른이 됩니다!

대종증 신현진 (33세, 사간공)

각박한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

습이 안타까워 예의가 없는 언행에도 눈과 귀를 막고, 귀여운 내 새끼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한 사람이나 집단에 미움을 살까봐서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시는 어른들! 내로남불!?

내가 죽으면 누가 산소를 돌보겠나! 내 생전에 파묘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어른들! 청소년의 실수나 잘못을 학교나 선생님의 잘못된 교육 때문으로 책임 회피하시는 어른들! “요즘 애들은 생각이 달라 말이 안 통한다” 고 밥상머리 교육마저 포기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어른인가! 어른의 어원을 살펴보면 “얼우다” 의 어간 “얼우” 가 접미사 “ㄴ” 을 만나 변형된 말로 본래의 뜻은 “남, 여가 짝을 이루는 행위를 뜻한다. 또 나이 드신 분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옛날 결혼한 남자에게만 상투를 틀게 하였고 적서를 구분하듯이 나이가 많아도 미혼인 사람은 각종 행사시 엄격히 차별을 받았다

요즈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어른은 확립된 자아를 가지고 고통을 참을 줄 알고 자기의 언행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충동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냉철한 판단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체 하거나 개인이나 소속 집단을 배려한 참견과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저의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참 어른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이나, 종중에서도 바른 말씀을 참지 않고 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야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국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른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지켜 가면 그 자손도 스스로 제자리를 지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깐요.

자가 어느 날부터 천장의 작은 구멍에서 쌀이 푹푹 떨어져 이것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자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기 위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으나,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즘은 결혼식등 피로연 음식으로 뷔페가 일반적이네 수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한다. 처음부터 수거하듯이 거두어 접시에 수북이 쌓아 놓고 결국은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먹고 나오면 웬지 손해를 본 느낌이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만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강물을 다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기껏해야 한 두 잔이면 죽한 것이다.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법정스님은 ‘물 속에서도 물을 찾는다.’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나무라셨다. 양손에 사과를 쥐고서는 깎아 먹을 수 없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 소유를 버리고 자부심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 중에 하나면 되는 거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노릇은 아니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탈이 난다. ‘죽할 줄 알아야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본다. 그저 부족한 듯 70%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다.

사전 의료의향서 작성

총무부장 현진

사람이 태어나 천수(天壽)를 누린 후 가족이 지키는 가운데 곱게 삶을 마감하는 “고종명(考終命)”의 복(福)을 누리고자 하지만 생로병사(生老病死)중 끝 구절이 어느 때가 부터 우리에게 친숙하게 숙명처럼 다가오면서 품위 있게 살다가 보다 존엄하게 마무리 하기위한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宿題)도 함께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아직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남아있다. 아직은 “안락사”(安樂死)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선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상황에 임박했을 때 고통의 연장을 줄이고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언명의료 결정법”시행에 앞서 정부에서는 2018년 1월15일까지 일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첨단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에서 최후가” 보편화된 현실에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언명치료가 생명의 연장이 아닌 고통의 연장, 존엄한 마무리 대신 비참하고 반인권적인 최후를 맞이하면서 남은 가족과 인사로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부담만을 남기고 떠나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진통제 사용 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언명의료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에 관

건강이야기



잘 먹고 잘사는 법

[문화부 제공]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엄숙한 ‘대의’는 없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욕심 때문이다. 서울 어느 산에 있는 암자에는 쌀 바위 구멍에 대한 전설을 있다고 한다. 동굴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 천장에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수도를 하던

한 의사(意思)를 건강할 때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준비하면 극한상황에서 작성자 본인의 무의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존엄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의 상담, 작성이나 등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웰빙다인협회” 외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조선역사 상식

조선왕에게 붙이는 명칭에 조(祖)와 종(宗)

이 차이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조(祖)와 종(宗) 같은 명칭을 일컬어 ‘묘호’라고 하는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왕이 죽고 난 후에 붙인 명칭이라는 것이다. 이 묘호는 뒤에는 조(祖)와 종(宗)이 붙는다. 조는 ‘공’이 탁월한 왕에게 붙이게 된다. 즉 나라를 세웠거나 변란에서 백성을 구한 커다란 업적이 있는 왕이 조가 되는데 조선을 개국한 ‘태조’이성계가 그랬고 임진왜란의 대환란을 극복한 ‘선조’가 그랬고 또한 대왕이라고 추앙을 받는 ‘영조’가 그랬다. 그리고 앞선 왕의 치적을 이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물을 융성하게 한 왕은 종으로 부른다. 이러한 묘호는 신료들이 왕의 일생을 평가해 정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선조의 경우 처음 묘호가 선종이었으나 국난(임진왜란) 극복 등 커다란 공이 있다고 일부 신하들이 주장해 선조로 바꿨다고 한다.

이와는 다르게 ‘군’이라는 칭호도 보이는데 군이라는 것은 원래 왕자들이나 왕의 형제 또는 종친부나 공신에게 주어지던 호칭이다. 그러나 광해군과 연산군의 경우는 재위 기간 중 국가와 민생에 커다란 해를 끼친 폭군으로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군으로 봉해진 것이다.

따라서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실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죽은 뒤에 묘호라 내려진 왕)과 왕비의 신위가 봉안되어 있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서도 광해군과 연산군의 신위는 찾아볼 수 없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현재에는 ‘세종대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만 당대에는 ‘조’의 반열까지 오르기에는 미흡한 왕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또한 광해군은 중립외교로써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지만 반정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군’으로 낮춰 기록된 것 같기도 하다.

▶ 조(祖)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등 7명으로 창업군주, 중흥군주나 큰 국난을 극복하였거나, 반정을 통해 즉위한 왕.

▶ 종(宗)

27명의 왕 중 9명을 뺀 나머지 왕들로 ‘수성’을 한 왕에게 붙임. 조와 종의 기준은 애매모호하며 당시의 정치적 형편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수성(守城)] 선왕이나 부조가 이룬 업을 이어서 지킴.

▶ 군(君) : 연산군, 광해군

반정으로 축출됨으로써 서술 왕자에게 쓰는 군으로 강등됨. 실록도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로 차별을 받음

평산신씨 전자대동보 수단 신청하세요!!

대중중에서는 전자족보 구축을 위한 사전 정비를 위하여 지난 해 11월 말 파종증을 통하여 접수된 대동세보의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 대중중에서는 구축업체와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평산신씨 전자대동보”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년 1월말까지 정리를 끝내고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파종증을 경유하여 신규 수단을 받아 6월 말일까지 대중중의 최종편집과 업체 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7월부터 대망의 평산신씨 전자족보”시현(示現)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본다. 종원 제위와 파종증의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도움이 뒷받침 된다면 일정을 더 당길 수도 있다.

수단 대상이 되는 종원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 파종증을 통하여 수단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파종증이 수단을 받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파종증은 대중중에서 직접 수단 신청서를 접수한다.

*수단방법 : 2018년 4월30일까지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파종증에 수단신청서와 함께 수단비 지정계좌 납부

*수단내용 : 종원 본인과 직계가족의 출생, 사망, 학력과 경력, 문헌과 저작내용, 프로필, 사진(10매 이내), 동영상, 비문과 영정, 화보 등 본인과 가족 고유의 사실과 사적

*족보편집 흐름도

종원 : 수단신청서 작성(증빙서류 포함)→

파종증 접수 : 사실 확인과 수단비 징수 → 대중중

송부 : 수단 내용 점검 후 업체 등록 →업체 : 족보

디자인 및 시안 작성→대중중 검수 → 업체 : 전자

족보 셋팅 → 시험 후 개통

* 수단비 :

신규 등록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인당-30,000원
누 보 자	2015년 이전에 출생자로 올미보에 등재되지 않거나 小字로 등재된 자	1인당-50,000원
배우자, 며느리, 사위	배우자(配), 며느리(婦,) 사위(婿)	1인당-30,000원
첨 식 비	학력, 경력, 수상, 저작, 묘소, 이장, 사망년월일, 등 기타,	1호당 -1,000원
별 보 자	派와 上系가 확인되지 않은 자	1인당-30,000원
사 진	영정, 묘소, 비석, 재실, 훈장, 가족사진(10매 이내)	1장당-30,000원
동영상	유튜브에 등재하여 링크함	1건당100,000원
각종 비문	비문(碑文) 크기 불문	1장당500,000원
개인프로필	사진 등 5 매 이내	1인당 50,000원
화 보	A4지 크기	1매2,000,000원
무 후 가	족보에 기록이 전혀 없는 자	5,000,000원

- * 2018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양력) 출생자는 1인당 20,000원으로 우대함.
- * 수단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종중 홈페이지 <http://www.pyeongsan.com> (사랑방소식)
· 이메일 : pyongsan777@naver.com 신청하기
- *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나 파종중이나 대종중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춘천 시조묘소 춘향제(봄제사) 안내

오는 4월 18일(음력 3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춘천시 서면 방동리 시조 할아버지 장절공 신승겸장군 묘역에서 춘향대제를 올리고자 하오니 여러 종원이 함께 동행 참배하여 시조님의 정기와 음덕을 듬뿍 받아오도록 당부 드리며, 단체(10인승 이상)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식수인원 파악 관계로 사전에 대종중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개인이 이용하는 교통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향사 참배 찾아오는 길

경춘선 전철(상봉-춘천), ITX 열차(용산, 청량리-춘천)를 타시고 종점 춘천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로 나오면 10시에 출발하는 방동리 묘역행 대절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차시간표]

- 전 철 : 상 봉 07:49 ⇨ ⇨ ⇨ 춘천 09:10(평일)
상 봉 08:08 ⇨ ⇨ ⇨ 춘천 09:36(평일)
- ITX : 용 산 8:00 ⇨ 청량리 8:15 ⇨ 춘천 9:13 ₩7,300
청량리 8:45 ⇨ ⇨ ⇨ 춘천 9:48 ₩6,400
(가실때에는 묘역앞 버스 정류장에서 12:15, 14:10에 82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락 02) 776-6111, 6151]

“종원동정”란 이용 안내

대종중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종보에 “종원 동정”란을 통하여 “시조 장절공의 후손들의 사회 활동 상황”을 접수하여 등재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 내 용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들
(수훈, 자격증 취득, 합격, 직위 취임, 선행 등)
- 보낼곳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http://www.pyeongsan.com>

대종중 빙자 책 구매(강매)시 대처 요령

평산신씨 대종중을 빙자하여 종원에게 방문 및 전화로 문집이나 족보, 연구자료집 등 책을 강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 등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 연락처와 담당자를 먼저 묻고,
2. 대종중(02-776-6111)이나 소속 파종중 혹은 지역화수회 등에 신고하시고,
3. 혹시 상대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은행계좌 등을 말하면 수신 전화번호를 경찰관서나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에 신고하세요.

* 대종중에서는 종보에 판매 공시한 책 외에 어떠한 책자도 구매를 독려하는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총무부장〉

2018년 1월 ~ 4월 행사 안내

- 1월 18일 : 2018년 제1차 재산처리위원회의 개최(춘천)
31일 : 2018년도 표창자 및 장학생 신청 마감.
- 2월 22일 : 제20기(2017년도) 회계감사 예정.
22일 : 2018년도 장학·상벌위원회 개최 예정.
- 3월 5일 : 정·부도유사 및 감사유사 회의 개최 예정.
8일 : 2018년 제1차 제례위원회 개최 예정.
15일 : 상임유사회 개최 예정.
29일 : 대종중 제20기 정기총회 예정.
- 4월 1일 : 승의전 향사.
5일 : 덕양서원 춘향제 봉행.
6일 : 표충재 향사.
6일 : 제정공파조 향사.
18일 : 춘천 시조 장절공 춘향대제

“알 림”

다음 종보 177호는 춘천 장절공 춘향대제 이후 발행됩니다.

2017년도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2017. 1. 1 ~ 12. 31)
보내 주신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도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춘대	영양군 입암면	30,000	균채	성동구고산자로	20,000	영철	충남 보령군	30,000	동춘	경기도 여주시	100,000
현철	예산군 예산읍	50,000	영진	안산시 단원구	50,000	기순	대구시 달성군	20,000	동성	경남 창원시	20,000
환식	사천시 사천읍	50,000	현균	구로구 신도림동	30,000	재훈	충북 오창읍	30,000	성균	서울시 도봉구	30,000
익순	금천구 탑골로	50,000	상철	인천 서구 대곡동	50,000	구영	서울시 중랑구	20,000	완섭	서울시 구로구	20,000
재설	시흥시 진말로	30,000	건영	성동구 행당로	50,000	동건	서울시 동대문구	30,000	상근	대전시 동구	20,000
상길	달서구 계대동문로	20,000	현목	동대문구 무학	20,000	동균	서울시 성북구	20,000	민태	서울시 관악구	20,000
수대	울산 북구 차일2길	50,000	현상	동작구 장승배기	20,000	정섭	충남 서천군	20,000	소남	경북 울주군	20,000
장현	은평구 불광로	20,000	현태	성동구왕십리	100,000	현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0,000	춘근	경북 포항시	50,000
조현	의정부시 시민로	50,000	동우	강동구 동남로	200,000	재섭	세종시 금남면	30,000	영돈	경기도 양평군	50,000
현주	포항시 남구오천읍	30,000	광수	포항시 연일읍	20,000	용규	서울시 중랑구	20,000	영철	충북 음성군	30,000
경철	전주시 덕진구	50,000	호철	고양시 덕양구	20,000	동규	광주시 북구	20,000	주섭	경기 안산시	20,000
준철	원주시 적동1길	30,000	경현	광주 북구 주월길	30,000	세호	경북 봉화군	50,000	재철	?	30,000
형선	충남 금산군	30,000	삼천	속초시 응골길	30,000	승훈	서울시 종로구	20,000	경섭	서울시 강남구	100,000
문식	고양시 일산동구	30,000	문철	천안시 서북구	20,000	기철	대구 수성구	20,000	동욱	서울시 서초구(2018)	20,000
동욱	부산시 부산진구	20,000	동순	화성시 동탄숲	20,000						
주생	진도군 의신면	20,000	광현	남양주시 의신	20,000						
종현	관악구 신사로	50,000	상준	문경시 (문화공파)	100,000						
보균	인천시 해송로	30,000	도균	동작구 신대방동	20,000	군수공파 종중	100,000	현령공파 종중	100,000		
해식	곡성군 오곡면	30,000	정섭	분당구 판교로	30,000	판사공파 종중	120,000	전서공파 종중	100,000		
익명	농협 중앙 정읍	50,000	금섭	이천시 남천로	20,000	정언공파 종중	300,000	밀직공파 종중	100,000		
재원	동대문구(2회)	100,000	영균	안동시 말구리길	30,000	진사공파 종중	100,000	표충재 종중	100,000		
성균	포천시영북로	50,000	동주	경북 경주시 안강읍	20,000	온수감공파 종중	100,000				
동영	순천대학교	20,000	현규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30,000						
명철	동대문구 홍제내	20,000	양수	고양시 일산서구	30,000						
현우	도봉구 도봉로	20,000	현범	(준철) 충남공주시	100,000						
동철	중랑구 신내로	50,000	석준	구로구 오류동	20,000	제정공파 한들종중	50,000	사간공파 홍림공종중	100,000		
동인	수원시 팔달구	30,000	현호	"	20,000	정언공파 구한공종중	50,000	정언공파 혁공종중	50,000		
영식	성동구 매봉길	30,000	인호	"	20,000	사간공파 포항 논곡종중	50,000	밀직공파 집의공종중	50,000		
영균	전남 곡성군	20,000	동욱	서초구 사평대로	20,000	한성윤공파 선원공종중	60,000	진사공파 김천종중	30,000		
홍균	대구 수성구	20,000	현식	성남시 분당구	20,000	정언공파 영광종중	30,000	제정공파 동상종중	30,000		
현택	도봉구 도봉로	20,000	동일	용인시 수지구	50,000	문화공파 서곡종중	40,000	문화공파 대업종중	50,000		
재은	인천시 강화군	30,000	기봉	오산시 은방울로	20,000	정언공파 참봉공종중	30,000	사간공파 해정공종중	50,000		
해섭	서울시 도봉구	60,000	평산상복	일본 오사카	1,000,000	제정공파 약목공종중	100,000	문화공파 우지종중	30,000		
경수	경기도 군포시	20,000	영호	충남 부여군	30,000	사간공파 한림공종중	50,000	제정공파 봉래공종중	50,000		
병재	전북 전주시완산구	20,000	승수	광주 북 서하	20,000	사간공파 도리재종중	100,000	제정공파 한들종중(2018)	50,000		
남철	충남서산시 서북면	20,000	숙조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0,000						
종철	충북 괴산	30,000	동진	경기 성남 분당	20,000						
무철	강원 양구	20,000	현민	경기 안산 상록구	20,000						
진섭	서울시 서초구	50,000	현주	서울시 강동구 천호	30,000						
현규	경기 양평 서종	30,000	연욱	경기 고양 일산서구	30,000						
현석	전북 익산	20,000	태철	서울시 은평 녹번	50,000						
재규	부산시 동래구	20,000	현태	경기도 양평	50,000						
형철	광주시 동구	100,000	현수	경기도 의왕시	20,000						
영균	강원도 삼척	20,000	상균	서울시 중랑구	20,000						
길웅	충남 홍성군	50,000	선균	충남 예산군	20,000						
재수	경기도 군포시	30,000	현석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20,000						
현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	20,000	상우	충남 서천군	40,000						
재균	서울시 성북구	25,000	영수	서울시강서구	20,000						
재교	대구시 달서구	20,000	승동	경기도 과천시	20,000						

보령시 화수회	80,000	동작구 화수회	30,000
공주시 화수회	160,000	광산구 화수회	30,000
성동구 화수회	30,000	포천시 화수회	50,000
고흥군 화수회	50,000	김제시 화수회	50,000
해남군 화수회	100,000	동두천·양주시 화수회	50,000
창원시 화수회	100,000	김포시 화수회	100,000
진주시 화수회	200,000	광진구 화수회(2회)	60,000
강화군 화수회교동중중	50,000	상주시 화수회	90,000
아산시 화수회	30,000	안양시 화수회	100,000
영주시 화수회	100,000	군산시 화수회	100,000
영동군 화수회	30,000	중구 화수회	50,000
익산시 화수회	30,000	대구매곡중중화수회	50,000
강남구 화수회	30,000	서천군 화수회	50,000
예천군 화수회	100,000	청송군 화수회	100,000
성남 화수회	100,000		

[춘천묘소 참배]

경북 문경시 신인균외 13명	200,000	문화공과 대부도중친회	200,000
창원시 화수회 신영국외 35명	200,000	충남 보령시신대철외 20명	100,000
신현도외42명 철곡약목사예공중중	200,000	신원환외31명청송판사공모임	100,000
문화공과대업중중회장 정균외44	200,000	신상기외5인 대구시 동구	100,000
익산일가회(신현석외9명)	300,000		

年總額 12,785,000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증.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종증.시군화수회 : 20부 년 3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1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 776-6151 / 010-9357-5337

부 음(訃 音)

“삼가 故 人의 冥福을 빕니다.”



申 國 柱 (대종중 명예도유사)

- 한성윤공파 30세
- 정치학박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 동국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학장
- 한성윤공파 도유사
- 18대 대종중 도유사
- 2017. 12. 3 별세 향년93세

〈도서 보급 안내〉

1. 평산신씨 대동세보



▶ 평산신씨 대동세보 재고가 소량 남아
있어서 선착순 판매합니다.
(문화공 : 무)

- ▶ 2권 : 밀직공파, 봉상윤공파, 장령공파, 현령공파 1질2책 12만원
- ▶ 6권 : 정언공파 1질2책 14만원
- ▶ 7권 : 한성윤공파 1질2책 14만원
- ▶ 8권 ~ 11권 : 사간공파 1질5책 26만원
- ▶ 11권 : 대제학공, 온수감공 1질2책 12만원
- ▶ 12 ~ 14권 : 제정공 1질4책 20만원
- ▶ 14권 : 전서공, 이상공 1질2책 12만원
- ▶ 15권 : 판사공 1질2책 14만원
- ▶ 15권 : 판윤공, 참판공, 군수공 1질2책 12만원

2. 평산신씨 천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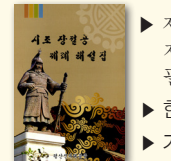
- ▶ 평산신씨 천년의 역사를 수록한
만세의 귀감이 되는 보감.
- ▶ 후손들을 위한 역사의 공부와
조상에 대한 유훈과 발자취 수록.
- ▶ 가격 : 1질(3권. 2400페이지) ₩200,000원

3. 평산신씨 성보(병자보)



- ▶ 평산신씨 최초의 족보
- ▶ 1636년에 象村 申欽께서 직접만든 한지
- ▶ 한정수량
- ▶ 가격 : 1권 ₩50,000원

4. 시조 장절공 제례 해설집



- ▶ 제례에 필요한 품목, 재료, 조리방법,
제례순서,축문, 홀기, 진설도 등 제례에
필요한 기록을 수록한 해설집.
- ▶ 한정수량
- ▶ 가격 : 1권 ₩20,000원

5. 종보 철 바인더



- ▶ 종보를 연속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바인더 철.
- ▶ 平山 로고가 있는 예쁜 디자인
- ▶ 가격 : 1권 ₩10,000원

문의.신청 : 02) 776-6111, 6151 (문화부)

송금 계좌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 바로 잡습니다.”

종보 175호 2면에 추향사 성금 및 화환 헌성
자 명단중 ‘신현덕 서울시화수회장’의 화환이 누
락되어 추가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家內 康寧하시길 祈願 합니다.

戊戌 元朝

大宗中 都有司 : 吉 淳

名譽都有司 : 相 式	名譽都有司 : 正 洙	名譽都有司 : 甲 湜
顧 問 : 鉉 銖	顧 問 : 日 淳	顧 問 : 鉉 埰
顧 問 : 龍 水	顧 問 : 光 淳	顧 問 : 璇 澈
顧 問 : 東 振	副都有司 : 鳳 湜	副都有司 : 澈 秀
副都有司 : 根 澤	副都有司 : 昇 容	副都有司 : 鉉 德
副都有司 : 文 雄	副都有司 : 東 銀	副都有司 : 東 夏
監事有司 : 權 彩	監事有司 : 民 澈	監事有司 : 鉉 晚
密直公派都有司 : 彦 植	掌令公派都有司 : 鉉 茂	縣令公派都有司 : 豪 均
文僖公派都有司 : 鳳 湜	正言公派都有司 : 澈 秀	漢城尹公派都有司 : 奎 澈
思簡公派都有司 : 根 澤	溫水監公派都有司 : 昇 容	齊靖公派都有司 : 鉉 大
典書公派都有司 : 泰 華	貳相公派都有司 : 善 均	判事公派都有司 : 世 源
進士公派都有司 : 彪 均	監察公派都有司 : 海 澈	判尹公派都有司 : 城 澈
參判公派都有司 : 鉉 守	郡守公派都有司 : 權 彩	龍山壇 都有司 : 明 湜
表忠齋 都有司 : 鉉 文	德陽書院都有司 : 仁 鉉	서울市花樹會長 : 鉉 德
仁川市花樹會長 : 壽 均	京畿道花樹會長 : 鉉 晚	江原道花樹會長 : 東 銀
忠 北 花樹會長 : 杭 澈	大田忠南花樹會長 : 民 澈	全北 花樹會長 : 文 湜
光州全南花樹會長 : 亨 湜	大邱慶北花樹會長 : 東 夏	釜山慶南花樹會長 : 相 修
濟州道花樹會長 : 芳 湜		

[代議有司]

密直公派 : 炫吾, 垓湜, 裕澈, 在澈, 東煥, 在哲, 点燮, 東昊 縣令公派 : 彦堯, 彦琦 文僖公派 : 鉉有, 慶澈, 弘湜, 永鉉, 東元, 相泰, 德均, 鉉寬, 晚圭, 東旭, 大湜, 鉉根, 命植, 鼎鉉, 鉉光 正言公派 : 鳳均, 奉均, 昇澈, 莊均, 鉉鎮, 相澈, 興均, 爽圭, 彦漢, 成均, 文澈 漢城尹公派 : 福澈, 載德, 辰燮, 相鳳, 東洙, 明澈, 儀燮, 載坤 思簡公派 : 白淳, 道淳, 東日, 盛三, 弘均, 榮燮, 元燮, 東郁, 憲澈, 鉉官, 東國, 相吉, 東勤, 龍澈, 永澈, 冠燮 溫水監公派 : 相雨, 斗淳, 東日, 春燮, 東完 齊靖公派 : 榮昭, 相甲, 雄均, 元均, 鉉瑀, 廷燮, 光秀, 榮大, 弘淳, 長燮, 鉉旭, 東完, 榮戊, 明均, 根燮 典書公派 : 鉉珪, 鉉德, 東錫, 東一, 弦宗 貳相公派 : 相均, 洩澈, 鉉出, 成澈, 世均 判事公派 : 在煥, 在昇, 榮教, 在元, 吉鉉, 孝哲, 春大, 容斗, 孝駿, 在鶴, 在永 進士公派 : 麒均, 泰昇, 點得, 彦樟, 東建 監察公派 : 香澈, 東元 判尹公派 : 允茂, 仁玉 參判公派 : 七均, 浩澈 郡守公派 : 錫在, 判錫 龍山壇 : 永杰, 鉉大 表忠齋 : 金澈, 在鳳 德陽書院 : 載準, 永焄 서울市(花) : 文雄, 昇, 英湜, 允廈, 五均, 晟澈, 金鉉, 載元, 鉉德, 曰壽 仁川市(花) : 滿洙, 鉉寬, 鉉淑 京畿道(花) : 鉉達, 東翼, 光鉉, 永喆, 長鉉, 道鉉, 奉澈, 鉉億, 佑鉉 江原道(花) : 根澈, 鉉睦, 聖浩 忠北(花) : 鉉旭, 斗澈, 相澈 大田·忠南(花) : 基澈, 東植, 載熙, 弘鉉 全北(花) : 東烈, 成湜, 炳澈 光州·全南(花) : 夏燮, 相南, 龍煥, 載沅 大邱·慶北(花) : 東一, 相敦, 相兆, 洪兆, 承澈, 釜山·慶南(花) : 明燮, 東勳, 相圭, 鉉鴻, 興湜, 判湜, 基一, 性澈 濟州道(花) : 寬一, 尙燮